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더디가는’ 전남의 시간

그 이후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동 개최 가능성에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며 균형발전 문제를 꺼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방점을 찍은 상생 협력이 균형발전에 가로막혔다. 광주·전남도의 협업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배척해선 안 된다. 나름대로 존중해야 한다. 특히 전남의 ‘큰 그림’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논리도 타당하다. 무작정 피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다.

최근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가 대학을 선정해 알려주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도민의 30년 열일이다.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그런데 해묵은 동·서부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총선은 ‘정권안정’ 대 ‘정권심판’의 총력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등 제3지대까지 다 지구도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생활공동체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정도 비슷하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말인가.

한 달 전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에서 민간·군공항 문제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묘하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의 3차 대화, 광주시와 무안군 2차 대화 등 공론의 장은 없던 일이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에서 민간·군공항 문제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립이 첨예하다. 정치권까지 합세해 각기 정당성을 내세운다. 전남도는 단일 의대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지만 역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당초에 상생, 통합, 공동체의 가치는 듣기에만 좋은 구호였다. 대한민국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균형발전 3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남권 의대는 통합이 정답이다.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도 유일한 70%대로 부동의 전국 1위 김 지사다. 만사를 제쳐놓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상에 내 뜻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선출직의 경우에 정말 그렇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이다.

지방자치의 역설이다. 군공항특별법도, 국립의대도 수용했으니 중앙정부는 알아서 정리해 오라고 뒷집이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간송 전형필과 백남준작품 소장가 김수경

듣는 자리가 광주에서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G·MAP 미디어아트 라운지에서 작품의 소장자 관련한 사연을 접할 수 있었다.

그가 백남준이란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미술관에서다. 전시 작품을 통해서 ‘Korea Born, America Artist’라는 설명어에 꽂혔다.

1999-2000년 미국 구겐하임미술관에서의 백남준 회고전에 관한 사연이다. 김희장이 90년대 뉴욕에서 몇 년간 지내던 때, 자신의 아파트와 백남준의 거처가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였더라.

간송의 사례에서 보듯 문화재와 미술품 소장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개인의 취향으로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문화적 힘을 갖고 있기에 사회적, 국가적 위상을 갖게 한다.

해를 볼 수 없기에 130만달러의 개런티를 보증하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다. 김희장은 그 보증을 자신이 하겠다고 배짱있게 나섰다.

문화재와 미술품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통 큰 배짱에 있어서 간송과 김희장은 유사해 보인다. 그 엄혹했던 시절 일본으로 빠져 나가는 문화재를 지켰던 간송도, 돈이 되는 콜렉션보다는 단순히 꽂혀서 하게 된 김희장도 일반인으로서 내치르기가 힘든 두독한 배짱과 자신만의 확고한 미학이 있었던 거다.

독자투고

최근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5천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대 청소년 12명을 홍보 책으로 이용해 도박사이트는 큰 규모로 성장했다.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이 최우선

소년이 도박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주변 사람의 권유’이다.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쉬운 경로와 친구가 없다는 수익을 보며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5년간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40명 중 완치가 실패해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는 70.9%에 이른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쪼먹는 도박을 가볍게 접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족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교육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社說

의대 증원 쟁기박은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해야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의 경우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의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증원 2천명 중 비수도권에 82%인 1천639명을 집중한 반면, 수도권 서울에는 한 명도 없고, 경인권에 18% 361명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전남은 고무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에 이례적으로 지역을 특정하고 의대 신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제 제대대 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설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환영 입장이다.

정부의 정면 돌파에 의료계와 대치는 파국 직전의 분위기다. 광주시의사회는 “시중일관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끝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하다. 각기 명분을 쟁기고 실리도 얻는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고 있다.

광주 대표 로컬브랜드와 육성 동명동 상권 기대감

광주 동구 동명동은 젊은층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광주시가 이곳을 ‘제1호 대표상권’으로 확정했다.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동명동은 관광복합문화공간 ‘여행자의 집’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인접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 강릉 커피촌에 버금가는 광주만의 색깔과 문화를 입힌 자원으로 충분히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리아 하는 매카가 됐다. KTX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더 사람이 모이고 또 가게가 더욱 늘면서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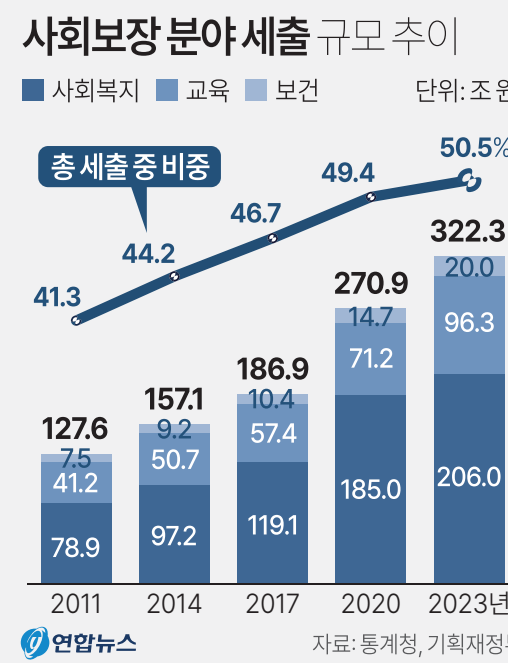
동명동 상권은 푸른 숲길과 오묘한 골목길을 따라 형성됐다.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감성 업소들이 밀집해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광주 대표로 역할할 준비를 마쳤다. 자생력 강한 상권으로 거듭된 변신을 기대한다. 커피 중심의 로컬브랜드를 관광자원화한 성공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래픽 뉴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 비중 50% 넘어서

지난해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었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